

* 제가 개인적으로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법입니다.

격조사: 앞에 오는 체언에 **자격 부여**

ex)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* 공통점:
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문장성분 + 격조사
 보격조사 서술격조사 (주어, 목적어, 서술어, ...)
 (호격조사)

IDEA! 격조사는 특정 문장 성분 뒤에만 올 수 있겠네?

ex) 주격조사: 주어 뒤, 목적격조사: 목적어 뒤

보조사: 특별한 뜻을 더함.

도구) 격조사와 보조사는 특정 문장 성분 뒤에서만

쓰이는 지로 구분 가능!! (제한이 있으면 격조사!)

㉠ 내가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다.

가, 으르, 을은 각각 주어, 부사어, 목적어 자리에에서만

쓰일 수 있다. 만약 자리를 바꾸면,

"라면이 점심을 나로 먹었다." 라는 혼종문장이 됨

* 주로, 은, 눈을 꺾어서 혼동하는데,

'나는 라면은 먹었다' 처럼 은, 눈은 주어나 목적어 넘나들며

쓰일 수 있음. 세를 하나 더 들어줌.

예2) 오뎡이가 오르비를 시작했다.

까지, 마저, 도 등의 꺾기를 헷갈려 하는데.

오뎡이까지 오르비를 시작했다.

오뎡이가 오르비까지 시작했다.

오뎡이마저 오르비를 시작했다

* 까지, 마저, 도는

오뎡이가 오르비마저 시작했다.

특정 문장 성분에 대한

제한 없음 → 보조사!!

오뎡이가 오르비도 시작했다.

오뎡이도 오르비를 시작했다.

오뎡이를 오르비가 시작했다. (X)